

내러티브 저널

2026년 4월 17일

오늘은 무용과 교생 선생님의 수업 시연을 참관하였다. 한국무용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실기복을 갖춰 입고 거울을 바라보며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몸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말보다 움직임을 통해 소통하는 수업의 방식이 새롭게 느껴졌다.

수업 초반에는 교생 선생님께서 다소 긴장한 모습이 보였다. 시선이 바닥으로 향하거나 목소리가 작고 떨리는 부분이 있어 수업 전달력이 약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며 안정된 태도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무용 수업은 교사의 말과 에너지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교사의 태도와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과 호흡이 맞아가고 수업의 흐름이 살아나는 과정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